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제 1독서] 지혜 11,22-12,2

[화답송] 시편 145(144), 1-2, 8-9, 10-11, 13-14(14) (1 참조)

◎ 저의 임금인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인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 하나이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제 2독서] 2테살 1, 11-2, 2

[복음 환호송] 요한 3, 16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루카 19, 1-10

성가	8시 미사	입당 18	봉헌 221 510	성체 179 498	파견 228
	11시 미사	입당 18	봉헌 221 510	성체 179 498	파견 228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31주일(11월 3일)		연중 제 32주일(11월 10일)		연중 제 33주일(11월 17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이엘리사벳(자영)	이바로(명국)	전베로니카(진영)	임루카(승원)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이바로(명국)	김길베르토(광호)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분도(환준)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김안젤라(영선)	허파비올라(옥진)	최분다(수영)	서테레사(춘애)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세리 자캐오의 변신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지혜11,23-24)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며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속단하거나 단죄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자캐오는 세관장이었으며, 당시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사실상 정당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제대로 살고자 하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심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그는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구원된 삶을 사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루카19,8) 라고 선언합니다. 회개의 마무리 단계로 결심한 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자칫하면 단지 생각으로만 그칠 수도 있는 위험을 극복하고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사실상 자캐오는 단지 한 개인이기 보다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2테살1,11) 아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자캐오는 세관장으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사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루카19,3)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의 내면의 처절한 반성과 갈등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약점을 극복하기>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군중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질러 달러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루카19,4)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캐오는 적극적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참된 행복의 길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여러 종교와 많은 단체는 경쟁적으로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참된 행복, 곧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3) 성부와 성자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누군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피조물의 사랑도 그런 힘과 위로가 된다면 창조주의 사랑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될까요?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탈선하는 자들도 내치지 않으시고 꾸짖고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큰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리코의 세관장 자캐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의 친일파 앞잡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직업상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자주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경건한 이들은 그들과 어떤 접촉도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던 세리 자캐오의 집에 자청해서 머무십니다.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기보다는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는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 굳어져 있던 자캐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그는 감격한 나머지 선뜻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

한 자캐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제2독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죄인마저도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분임을 보여 주십니다.

실사 우리가 하느님께 등을 돌려도 그분은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변치 않는 하느님 사랑의 눈길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역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진정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학교 사목국장

1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일반 : 고통 받는 사제들
어려움을 겪는 사제들이 고통 중에도 위안을 얻고,
흔들릴 때 도움을 받으며,
사제직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 라틴 아메리카 교회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교회가
선교의 열매를 맺어
다른 교회에 선교사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의 향기

위령성월에 떠오르는 단상

11월은 돌아가신 영령들을 기억하는 위령의 달입니다. 위령성월은 또한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게는 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되고 평소에는 이를 잊고 살다가 위령성월이 되면 불현듯 생각하게 됩니다.

20년 전인 1993년 6월 평화방송의 ‘우리 함께 성가를’이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본당 성가대가 출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성가 중에 ‘주여 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동생인 이분매 수녀님이 작사를 하고 오빠인 이종철 신부님이 작곡한 곡으로 장례 미사에서 고별식에 부르는 성가입니다.

이 곡을 녹음하면서 사회자가 성가대원들에게 곡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단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장례 미사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정성껏 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언젠가는 돌아가신 분의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되고 나를 위해서 성가대가 이 노래를 불러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나를 위한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직 젊었던 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의 나이가 되고 보니 새삼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를 남의 일로 여기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를 밝고 아름답게 그린 이가 있습니다. 귀천으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입니다. 천시인은 이 세상살이를 소풍이라 말하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겠노라고 노래했습니다.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생전에 이른바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 모진 시련과 가난을 벗 삼아 남들이 보기에는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이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는 시인의 달관의 경지는 신앙인인

우리들이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천 시인은 훗날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심을 이 시에서 표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인이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몬이라는 세례명을 가졌던 그의 신심은 무척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천시인처럼 “참으로 아름다웠더라”고 하고, 또 내년 4월 성인품에 오르실 요한 바오로2세 교황님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묵상해 봅니다.

김태식 토마스
가톨릭 언론인 협회 회장

11월의 성인/성녀

가타리나, 그레고리오, 드보라, 루포, 라자로, 로마노, 막시모, 마우로, 바실리오, 베네딕토, 실베스테르, 실비아, 세베리노, 아녜스, 유스티나, 안드레아, 엘리사벳, 앙브로시오, 엔플레다, 즈카르야, 체칠리아, 테오필로, 테오도로, 펠릭스, 필로메노, 힐다

* 성 안드레아(11월 30일)

어부 요한의 아들인 시몬 베드로(Simon Petrus, 6월 29일)의 형제인 사도 안드레아(Andreas)는 공관복음에 의하면 가파르나움 출신이고(마르 1.21-30, 요한 복음에 의하면 갈릴래아 베싸이다 출신으로(요한 1.44) 그 역시 어부였다. 그는 세례자 요한(Joannes Baptistae, 6월 24일)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을 만났고, 이때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첫 제자 될 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다(요한 1.35-42). 얼마동안 그들은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주님이 갈릴래아로 되돌아 오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시면서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게 하셨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스키티아(Scythia)와 그리스 지방으로 전교 여행을 갔고, 조금은 의심스럽지만 비잔티움(Byzantium, 콘스탄티노플)까지 가서 성 스타키스(Stachis, 10월 31일)를 그곳의 초대주교로 임명하였다고 전한다.

가톨릭전례

“천주교 신자가 점(占)보러 가도 되나요?”

올해도 변함없이 대입 수능시험이 다가옵니다. 시험 앞에 학생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수험생을 둔 부모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덩달아 긴장합니다.

자식이 잘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부모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가 자녀의 입학이나 성공을 위해 점을 보러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성경은 시련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 길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신앙인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란에 정착하여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창세 12,1)

그는 안정된 삶의 터전인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에 근심이 밀려오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에 불안감은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더욱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리라는 말을 듣고 과연 누가 이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성모님도 처음에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라고 대답하며 믿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우리 앞에 언제나 어둠처럼 드리워지지만 그것이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미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신뢰심을 가지고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드리고 이에 대한 불건전한 호기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115항)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생명에 대한 위협마저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선조들의 순교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교가 전해진 축복의 땅입니다.

생명으로 지켜온 순교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전해줘야 할 진수입니다.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자녀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미래가 그분의 약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은 자녀들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며 학문적인 바른 답을 찾아갈 때, 부모는 신앙의 시험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삶의 정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모든 점(占)

을 물리쳐야 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116항)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넘보며 하느님 이외의 다른 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입니다.

부모의 굳은 믿음은 자식의 마음속에 뿌려질 신앙의 씨앗이며 유산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느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 그리고 넉넉한 수입만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가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며, 삶을 통해 실천하며 지켜야 하는 것은 현실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일회용 같은 미신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굳센 믿음입니다!

“우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지구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여호 1,9)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2110-2117항

가톨릭 교리 상식

<수호성인>

1. 의미 : 어느 특정한 수호성인을 통해서 하느님께 청원을 하고 하느님의 보호를 받음.
2. 역사 :
 - 초세기경까지는 순교자만이 성당의 수호성인이 될 수 있었음
 - 사람들 각자의 수호성인은 4세기부터 보편화됨.
3. 세례명 : 선택한 성인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
4. 직업별 수호성인
 - 교회 : 성요셉
 - 자선단체 : 성 빈첸시오 아바울로
 - 가톨릭운동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출판단체 :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 경찰관 : 미카엘
 - 목수 : 성 요셉, 성 토마
 - 상공업학교 : 성 요한 보스코
 - 요리사 : 성 마르타
 - 우편집배원 : 성 가브리엘 대천사
 - 코메디언 : 성 비토
 - 음악가 : 성 그레고리오 대교황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4	218	34	336
헌 금	\$543	\$1,367	\$23	\$1,933

< 교무금 > \$3,760

이기희(7-10) 이종주(7-12) 홍흥기(8-12) 조관식(10)
강시구(1-12) 팽현팔(10-11) 허은석(9-10) 차영화(10)
이순자(9-12) 이영길(10-12) 정애리(11) 이건용(11)
조진행(7-12) 황국명(8-10) 윤덕림(11-12)
최몽렬(9-10) 박호영(11)

< 성소후원금 > \$160

홍흥기(8-12) 허은석(9-10) 차영화(7-11)
박호영(11)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전문자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11월 3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11월 5일 화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첼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황데레사(미대자)	가족
	연	황데레사(미대자)	윤사비나
	연	돌아가신 연령들	사랑하올어머니Pr.
	연	박마리아/권경옥	신엘리사벳
	연	김순이	신엘리사벳
	연	돌아가신 가족들	전안드레아/데레사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이기창/이수방	이데레사(자선)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홍요셉(울리아)	이안나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김에드워드(지성)	익명	
생	이바오로(영국)	변성우안토니오	
11월 6일 수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첼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11월 7일 목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11월 8일 금	연	메첼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첼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연	장바오로(대식)	장루시아(희숙)
생	성시간 성가대	익명	
생	야고보/미카엘	이바오로	
생	장림파(지윤)가정	장루시아(희숙)	
11월 9일 토	연	서라이문도	서데레사
	연	메첼도안토니오/린	서데레사
	생	조리디아(미경)	익명

~~~~ 오늘의 간식은 상지의 옥좌 Pr.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항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가톨릭교회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위령의 날(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달에는 특히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지내도록 합시다.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전례안내

11월 7일(목) : 성시간

◆ 대림절 성경 쓰기 : 시편 71장 - 150장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마리아회 : 11월 3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구역장회의 : 11월 10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서예반 첫모임 : 11월 10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요셉회 : 11월 17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메디칼, 오바마 케어 설명회

일시 : 11월 3일(오늘) 8시 미사 후 성당,  
교중미사 후 친교실

◆ 오클랜드 교구 성김대건 가톨릭 묘지 봉헌식

일시 : 11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1051 Harder Rd. Hayward, CA

◆ 서중부 제 18차 전체 올드레아

주제 : 빨리 일어나라(사도행전 12,7)  
장소 : 샌프란시스토 성마이클 성당  
일시 : 11월 9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 신앙의 해 신앙상 후보자 추천

- \* 수상 내역 : 미사참례와 신심단체 활동에 적극적이며, 기도 및 성사생활에 열심하여 신앙적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한 포상
- \* 후보 추천 : 연말에 올해의 교우상(전교상, 봉사상, 사랑상) 시상이 따로 있으니, 위의 수상 내역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시상일 : 11월 24일 신앙의 해 폐막미사 중
- \* 접수 : 11월 10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 \*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 대림피정 안내

일시 : 12월 10일(화) 오후 7:30 - 10:00  
12월 11일(수) 오후 7:30 - 10:00  
주제 :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강의 :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참가비 : 무료(간식 제공)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오늘 성모회에서 고구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